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3. 2. 12(일) 14:00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	책임자	과 장 김기석 (044-202-4640)
		담당자	서기관 소현지 (044-202-46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와 튀르키예 지진 복구에 위성영상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을 활용하여 위성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5호 등은 국제적인 재난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 재난재해 대응 프로그램(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s’, 이후 ‘차터’)에 가입하여 위성영상을 제공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및 복구지원을 위해 위성영상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전 세계 재난 재해 구조 활동에 기여하고자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을 차터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월 7일 오후 5시(현지시간)부터 다목적실용위성 5호로 지진 피해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매일 1회 이상 차터에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인 촬영 요청을 받아 앞으로의 위성영상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2월 10일 안타키아 지역의 촬영 영상 분석 결과를 소방청에 전달하여 한국 긴급구호대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오전 10시 48분(현지시간)부터 차세대중형위성 1호로 촬영한 지진 피해지역 영상을 국방부, 소방청 및 튀르키예 정부 등 요청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첫 번째 영상으로는 산르우르파 지역의 영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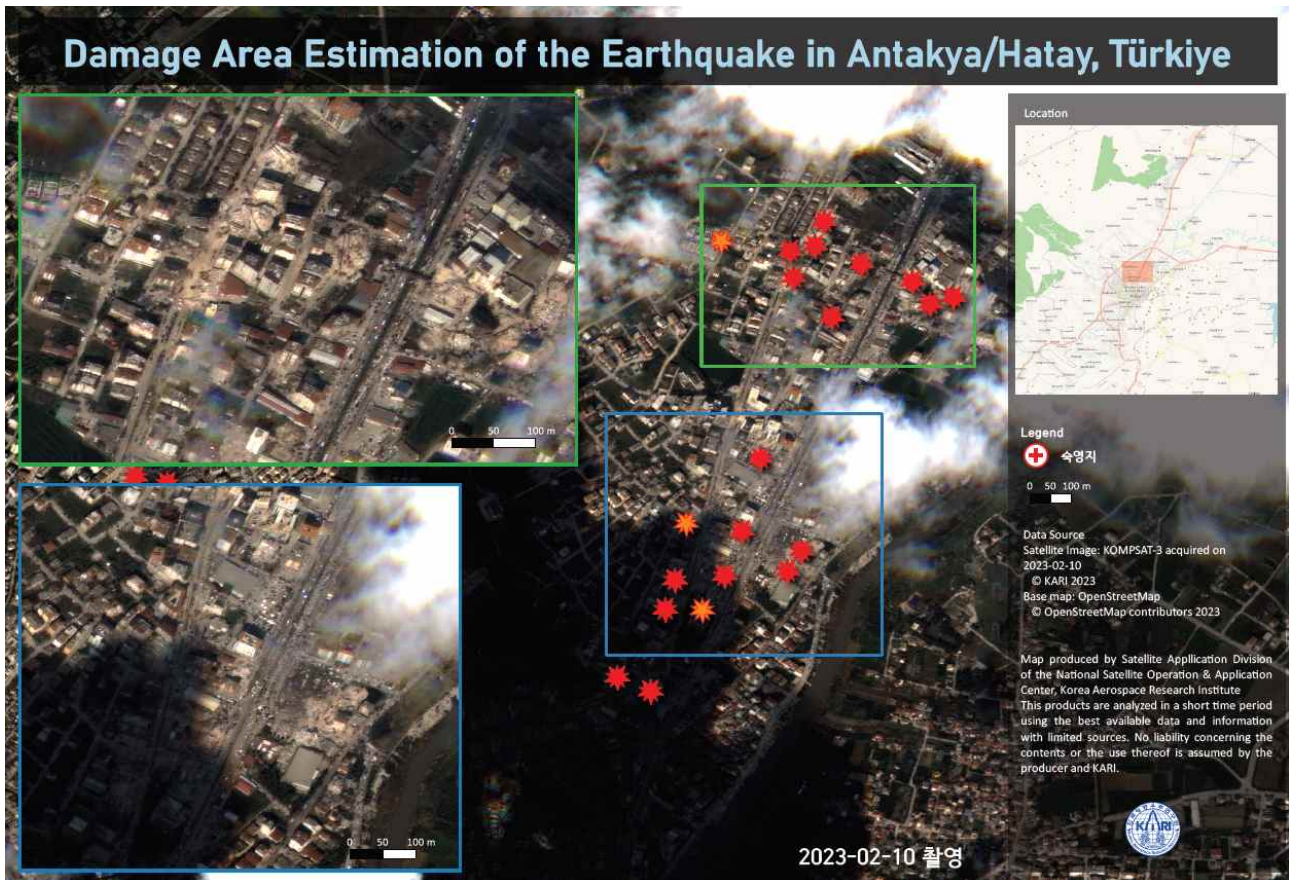
과기정통부 김기석 우주기술과장은 “전부처 간 협력 및 국토교통부가 활용하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지역 촬영 영상을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붙임. 지진피해지역 위성 영상 사진.

담당 부서 <공동>	국토도시실 공간정보진흥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익 (044-201-3469)
		담당자	사무관	안종태 (044-201-3471)

□ 영상 사진

- ① 튀르키예 피해지역 중 동남부 하타이 안타키아 지역 사진(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의 지도 분석을 통해 소방청에 전달)



□ 영상 사진

① 산르우르파 지역(전체)



② 산르우르파 지역(세부)

